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교만해지나니
뜻 맞지 않는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6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6호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교수·동아리 연계 대학포교 진흥 박차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학불교네트워크 추진
종단-대학생-학계-신도회 포교 일원화 목표

현직 불자교수들이 각 신행포교단체별로 실시하는 대학생포교활동을 일원화하고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최근 '대학불교네트워크(가칭)'를 조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5~7일 부산 일원서 열린 '2016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학생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자리서 교불련 소속 교수들은 대학생포교를 이끌 구심체 조직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불련이 구상하는 대학불교네트워크는 범종단-대학생-학계-신도회가 긴밀한 소통을 하며 대학생포교에 나서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다. 그간 종단이나 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던 포교활동을 하나의 구심체로 결집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구상한 이유는 현재 부산지역서 교수와 신도회, 사찰 등이 연계해 대학생포교 효과를 보고 있어서다.

부산교불련은 현재 교수들이 108모임을 결성, 매월 1만원씩 후원금을 걷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를 연다. 여기에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공양을 지원하고, 홍법사 등 일선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대불련 부산지역 동문회도 후원하며 원활한 대학생포교가 이뤄지도록 힘도 모으고 있다.

정태권 부산교불련 회장은 "교수들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됐다. 요즘은 정기법회에 50~60명의 학생들이 참석한다. 가장 많을 때는 80여 명의 학생들이 찾아와 법당이 비좁을 정도였다"면서 "다만 방학 때는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편이다. 그래도 교내 불교동아리 유무를 떠나 학생들이 직접 법당을 찾아온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학생포교가 그나마 원활한 것은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때문"이라며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학생들 자체적으로 체계가 잡힐 때까지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불련은 부산지역에서 대학불교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대학생포교의 주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심익섭 회장은 "대학생포교가 위기에 처했는데 교수들은 뭐하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많았다. 교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며 "대학생포교의 주체는 엄연히 대학생이다. 현장서 직접 뛰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불련의 네트워크 추진과 관련해 포교단체장들의 입장 역시 긍정적이다.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장은 "현직 교수님들도 교수들이 신행을 중심으로 포교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교불련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언제든 문을 열고 환영할 일"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한신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평소 신도회장님도 개별적 포교활동보다는 지역신도회와 사찰 등이 연계돼야 한다고 말하셨다. 교불련 취지와도 잘 맞는다"며 "교불련 측이 어느 정도 계획을 정리하면 구체적인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불련은 협의가 필요한 유관단체들이 네트워크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공동체 의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심 회장은 "대학불교네트워크는 불교발전과 중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 없이는 장기적으로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없기에 단체들과 지혜를 모아 확실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포교활동 연계로 효과 본
부산지역 모범사례서 착안
대불련과 구체적 논의 예정
포교단체장들 "취지 공감"

공동체 의식 유지가 관건
"긴밀한 대화로 지혜 모은다"



정각회 소속 의원들이 20대 정각회 출범과 함께 활발한 불법홍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앞열 오른쪽부터 세 번째가 20대 정각회 회장 주호영 의원, 바로 옆 네 번째가 19대 회장을 지낸 강창일 의원이다.

"나눔·봉사 앞장서는 불자 국회의원으로"

제 20대 국회정각회 13일 출범…주호영 의원, 회장 선출

제 20대 국회의원들의 신행모임인 정각회가 7월 13일 정기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총 41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 20대 정각회는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주호영 정각회장은 "어렵고 힘든 곳을 위해 봉사하는 정각회가 되겠다"며 정각회가 자비나눔에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정각회(正覺會)는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신행단체다. 이번 20대 정각회에는 부회장으로 이진복 김영주 의원, 간사장에 이개호 의원, 간사에 이헌승 오영훈 의원이 선임됐다. 감사는 이은재 신경민 의원이 맡는다. 전임 회장인 정갑윤 의원과 강창일 의원은 고문과 명예회장으로 각각 추대됐다.

이날 주호영 신임 정각회장은 "연말에는 그동안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눔행사를 풍성하게 열어 국민적인 조명을 받는 반면 불교는 상대적으로 허전했다"며 "2014년 논산훈련소 정각회 위문과 같이 위문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불자회, 국군불교총신도회, 각 종단 중앙신도회 등 유관단체들과 교류가 많아져야 한다. 임원진끼리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진행 중인 정기법회도 시간을 앞당겨 경전 공부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변경을 모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정각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9월 1일 오전 7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각회 출범법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2017년 3월 국회 휴회기간 동안 미얀마 성지순례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외서 떠돌던 지장시왕도 '還地本處'

조계종·문화재청·국외재단 獨 경매 출품된 불화 찾아
현재 불교중앙박물관 이운

국외 소재 불교문화재가 불교와 민간재단, 정부의 협력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해 체결한 국외소재 불교문화재의 정보공유와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각서에 따라 독일 경매에 출품된 석천암 불화인 '지장시왕도'를 환수했다"고 7월 14일 밝혔다.

석천암 '지장시왕도'는 지난 5월 독일의 한 경매사에 출품된 것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이 확인해 조계종에 알려왔다. 이에 조계종은 출품불화에 대한 환수를 결정했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원을 받아 6월 독일 경매에 응찰했다. 경매에 낙찰받은 불화는 지난 7월 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현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된 상태다.

불암산 석천암 '지장시왕도(비단 채색, 148×154.8㎝)'는 서구식 액자로 변형되어 보관돼 있으며, 본존인 지장보살과 명부의 대왕 10명을 비롯해 판관, 사자 등의 권속들이 잘 남아 있다.

특히 그림 아래에 기록된 화기(畵記)에는 '양주 천보산 석천암(揚州天寶山石泉庵, 현재 남양주시 불암산 석천암)'으로 봉안처가 기록돼 있으며, 봉안일은 '도광28년 무신 4월 초파일 완성하여 14일에 점안하여 봉안(道光二十八年戊申四月初八日神供十四日點眼奉安于')이라고 적혀 있어 1848년에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환수된 불암산 석천암 지장시왕도. 지장보살과 명부의 대왕 10명을 비롯해 판관, 사자 등의 권속들이 잘 남아 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독일 경매사에 출품된 불화를 응찰해 환수했다.

또한, 화승으로는 법총(法聰), 희원(熙圓), 혜호(慧皓) 스님 등이 참여했고, 불화조성 불사에는 상궁 10명과 윤치정 등도 동참했음을 기록됐다. 조성불사에는 지장시왕도뿐만 아니라 후불탱화, 산신탱화도 함께 제작됐음이 화기를 통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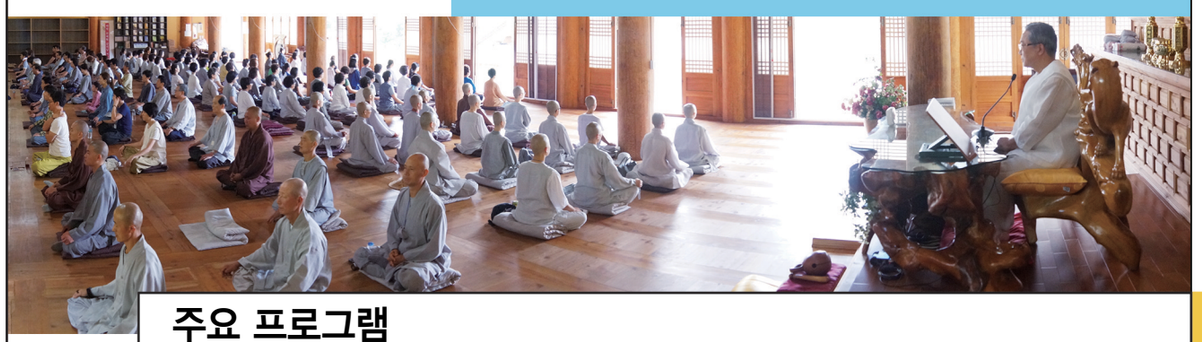
천보산 석천암은 현재 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로, 〈봉선사본말사약지〉에 1882년 중창기록부터 남아있어 사찰에 관한 역사와 기록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번 환수에 대해 조계종은 "앞으로도 예경의 대상인 성보의 종교적 기능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찰의 역사를 찾기 위한 방향으로 성보환수에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문화재청과의 협력 각서에 따른 도난 불교문화재, 해외경매에 출품된 중요 불교문화재에 대한 환수업무도 다각도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조정맥 제78대
대한불교조계종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맥선원 여름 수련회
8/12(금)부터
8/15(일)까지
3 박 4 일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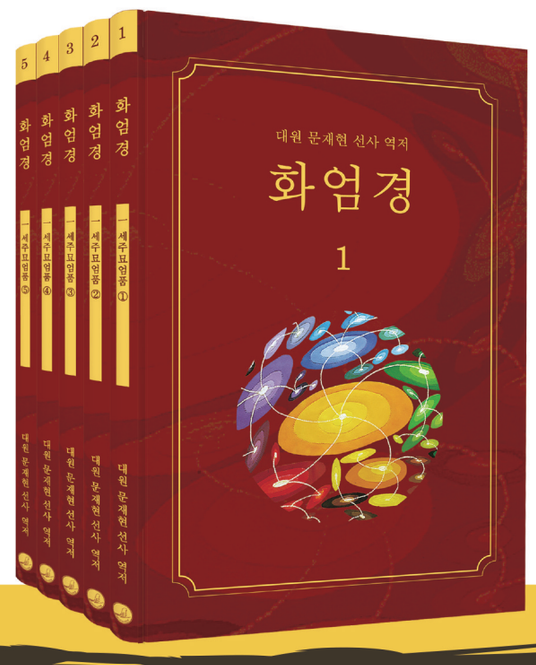
주요 프로그램
법문시간 : 대원 선사님의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통쾌한 선법문을 만나십시오.
문답시간 : 선사님께 직접 자신의 수행을 세밀히 점검,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선시간 : 선사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참선지도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선정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 소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 **교 재**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참가비** 10만원
신청문의 성불사 010-6431-8805 /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책 출판으로 1, 2, 3, 4, 5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사문의 : 010-4520-7963〉

전자출판 5권 무료공개 예정